



JJ슈퍼스타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마길 45(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사정팀
TEL 063)220-3233~7 FAX 063)220-3238 <http://iphak.jju.ac.kr> <http://blog.naver.com/jeonjuao>



저마다 모인 별들이 슈퍼스타로 빛나는 곳
전주대학교에는 수많은 슈퍼스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당신입니다.

JJ슈퍼스타

당신이 전주대학교의
슈퍼스타입니다.

The Light of Superstars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는 별,
세상을 밝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가능성!
그 잠든 거인을 깨워드리겠습니다.

contents

- 06 인사말
- 08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 10 수퍼스타의 학교생활
- 12 우리가 찾은 수퍼스타
- 14 수퍼스타 우리가 키운다
- 16 고교와 대학이 만나다
- 18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계획



전주대학교에서 SuperStar가 됩시다

꿈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은 창의성과 열정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차별화로 특성화된 Only One University를 추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펼쳐 수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완공될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서관은 최고로 만족스러운 Campus Life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실력 있는 교수진과 최상의 교육과정은 여러분을 수퍼스타가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대학교는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캠퍼스를 최첨단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최첨단 캠퍼스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여러분 모두가 수퍼스타가 되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대학교에 와서 수퍼스타가 되십시오. 전주대학교는 전북 최초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으며 2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에는 정원의 10.3%인 290명을 인성 및 창의성, 리더십,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선발하였으며, 그 결과 선발된 학생 중 수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대학교 입학사정팀에서는 신입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서 길라잡이, 학습향상지원 프로그램, 글쓰기 여행, 멘토링 프로그램, 글로컬 기초교육 등 입학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인원을 정원의 20%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각적 차원에서 학생선발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전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진정한 수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입학관리처장 **박 동 수**




수퍼스타의 요람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통해 인재배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인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쇠락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데는 수많은 인재가 국내외에서 몰려오고, 또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배경에는 엄청난 국가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유학을 보내 인재를 양성해 온 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사회도 그동안 소수점까지 따지는 단순한 성적과 지식 위주에서 이제는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잠재적인 인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가는 '천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띠고 출범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초창기인 입학사정관제도는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대학교가 그 노력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을 표방한 우리 전주대학교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새만금 비전이 펼쳐지는 희망의 땅! 전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을 어느 대학보다 깊이 인식하여 올해 사업 3차 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2009학년도에 이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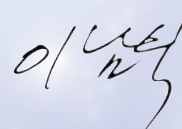
인재들이 우리 대학의 캠퍼스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이들을 글로컬(세계 속의 지역대학)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최근 총 1,500억 원을 들여 스타타워(호텔식 기숙사)와 스타센터(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서관)를 완공하여 교육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중심대학, 교육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비록 지방대학이지만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고 인재를 키우는 길이라면 조건 없이 뛰고 힘 없이 개혁할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는 점차 확대될 것이며, 지역고등학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올바르게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토대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뛰는 수퍼스타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총장 **이 남 식**



빛 고합니다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2009년 4월

전주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수시 1차에 목회자추천자(30명), 자기추천자(46명), 특기자(104명), 수시 2차에 전문계 고교출신자(70명), 만학도·주부·취업자(20명), 국가사회기여자(20명)로 최종 확정하고 6개 전형, 290명(정원의 10.2%)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 7-8월

세부계획이 완성되고 난 후, 입학사정관들은 어렵고 낯설다고 느끼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선고교에 직접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과 1:1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8-9월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촉사정관(교수)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4월-6월

입학사정팀은 최종 확정된 6개 전형의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고교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학생부 비교과활동 가운데 고교현장의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세부영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학년도 자기추천자 전형의 평가과정을 재검토하여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의



설명회

2009년 9-12월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자들을 입학사정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 자기추천자 전형과정

2009학년도에 이어 실시한 자기추천자 전형은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표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형을 모델로 다른 입학사정관 전형도 점차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추천자 전형과정을 소개해볼까요!

자기추천자 전형은 사회과학대학, 대체의학대학, 사범대학, 문화관광대학, 문화산업대학의 16개 모집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단과대학별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범대학은 사제동행형, 사회과학대학, 대체의학대학은 사회봉사형, 문화관광대학, 문화산업대학은 문화인재형의 인재상을 마련하여 다른 전형과는 달리, 단과대학별로 학생을 평가하였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지원자의 서류는 전임사정관 2명과 위촉사정관(교수) 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합니다.

1단계 서류재평가

3명의 서류평가 결과, 평가자 간 등간 차이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3의 위촉사정관(교수) 2명이 심사합니다. 그리고 총 5명의 심사결과 가운데 최고심사와 최저심사를 제외한 3명의 심사결과를 최종심사에 반영하여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면접평가

면접평가는 서류를 평가한 전임사정관 1명, 위촉사정관(교수) 1명, 전공교수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개별면접

지원자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창의성 문제를 면접 10분 전에 제시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사장에 입실한 지원자는 창의성 문제에 답변한 다음, 면접평가가 지원자의 서류를 토대로 작성한 개별질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어 전공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집단토론면접

개별면접이 끝난 6명의 지원자는 고사장에 입실하여 토론주제를 제시받아 상호 간의 의견을 피력하며 토론합니다. 토론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평가위원이 개입하기도 하고, 필수답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고교자문단 회의



서류평가



면접



면접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는 곳

전주대학교에서의 1년이 선구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범대에 진학해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 1년을 보내고 난 지금은 단순히 교과지식만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서서 인생을 가르치는 참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참스승은 헌신적으로 학생을 돌보는 스승인데요. 강단에 서서 교과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을 벗어나 학생과 눈을 맞추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꿈꾸죠. 함께 여행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즐겁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사제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간의 학교생활은 저의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목표를 계획하게 해주었죠.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저 자신을 추천했을 1년 전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제게 생겼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은 꿈을 마주하는 제 마음가짐일 거예요.

전주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활동은 무엇이었죠?

우리 학과에서는 여름방학마다 전국의 서당에서 5주 동안 서당체험을 해요. 서당체험의 하루는 법당에서 성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성독 후에는 훈장님의 수업을 받아요. 한문교육과라는 명칭에 걸맞는 실천수업인 셈이죠. 밤에는 각자 지정된 선배님께 공부한 내용을 검사받아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에요. 그날 공부한 내용을 완수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만은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답니다.

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멋진 후배들이여! 우리 함께 사서스터디를 하고 논어를 읽어볼까요. 내년 여름엔 서당체험에 나가 옛날 선비들처럼 지내보는 것은 어때요. 한문에 대한 열정으로 같이 공부하며 서로의 목표를 위한 촉진제가 되는 멋진 경험을 하며 말이죠. 거창해 보이지만 전주대학교에서 함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09학번 김선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 꿈에 한층 더 가까워졌죠. 수업시간을 통해 배웠던 이론과 현장경험담을 담은 나만의 참고자료를 만들고 방학 동안 현장실습을 다녀왔죠.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이라는 특 1등급의 고급호텔이었는데, 제가 소속된 부서는 주방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과 서비스맨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였지만 다른 여러 부서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주방운영에 대한 크고 작은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죠.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의 습성상 기본적인 외국어 회화까지 익힐 수 있어 좋았어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 다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덕분에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 변하는 제 모습에 커다란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은 3년,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 외식 컨설턴트로서 외국본사의 마케팅 분야에까지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경영하는 기업의 책임자로 일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 계속 현장실습 경험을 쌓아 갈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보고 경험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며,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09학번 곽민유

꿈을 이루기 위한 즐거운 과정 되기를...

민유는 어떤 학생인가요?

전공교수로 민유를 접하면서 감탄할 만한 부분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열중하고, 학기 중이나 방학을 가리지 않고 전공 관련 서적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저 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에 대해 묻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죠. 방학 중에는 전공 관련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고, 호텔 실습에 참여하는 등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드물게 열정적인 학생이죠.

민유에게 전공교수님으로서의 조언 한 말씀!

요즘 학생들은 멋있게 보이는 직업, 편한 자리에서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체의 책임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어렵고 곳은 일도 발전을 위한 경험으로 여기고 사람 간의 관계를 확장하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실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외식산업학과 교수진은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알고 행동하는 민유 같은 학생이라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교수 최동주



무대위의 연극을 나의 이야기로...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 대본읽기조차 어색했던 제게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제게 주연급의 역할로 큰 연극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주인공으로서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대감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30분, 총 18회 공연은 힘에 겨웠지만 희를 거듭할수록 극단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연극활동을 할 수 있는 학과로 입학할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대학선택으로 고민하던 중 연기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전주대학교 자기추천자 전형에 대해 듣게 되었죠. 자신을 추천한다는 것이 부끄럽긴 하였지만, 그동안 연극에 대한 저의 열정적인 활동에 스스로 당당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극단 선생님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연극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연습실에서 서로의 연기를 지적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지 밤을 지새우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면접일! 면접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막상 교수님들의 얼굴을 뵈게 되니 공연할 때보다 더 떨렸지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교수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져도 된다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준비했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고 원하던 입학의 기회를 얻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최종 목표는요. 교수가 되어 연극을 접할 수 없을 지방 학생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연극영화과도 수도권에 있는 연극영화과 못지않게 좋은 연기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누가 되든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극인 지방생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전주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겠죠. 10년 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인 우민재를 기대해 주세요.

문화산업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0학번 우민재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

제 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요리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다가 직접 요리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본격적으로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학교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기본으로 양식, 제과, 제빵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학교수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은 학원수업을 통해 중식, 일식, 복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대회출전경험도 많은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한국 고유의 전통재료의 창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WWKF" 요리대회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2인 1조로 출전한 우리 팀은 한 달을 두부에 색을 입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오색두부전골과 보쌈"을 선보여 가장 주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등상인 문화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땀 뚝 떨어 기뻐했습니다.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상이었던 만큼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가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에 입학하여 전통음식문화를 전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제 꿈은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식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언어공부를 충실히 하고, 색다른 음식을 발견하여 저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화와 음식을 배우고, 한식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영감을 얻어 우리 음식을 세계의 음식으로 대중화시키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대학 전통음식문화전공 10학번 황이현



내가 받은 소중한 선물!

고등학교 2학년, 남들은 진로로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 저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엄청난 체중으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이던 성격도 소심해지고, 학업성적은 날로 낮아져 자신감은 바닥을 치던 시기였죠. 이런 제가 봉사활동을 접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은 도서관이나 기차역, 우체국 등 손쉽고, 형식적으로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기관을 선택하는 데 비해 저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고2부터 고3까지 주말마다 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봉사활동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늘어났던 체중은 오히려 근육으로 변하면서 체력이 되어 고3 생활의 에너지가 되었죠.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나의 보살핌이 누군가에게 환한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학교생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고 성적 또한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러한 값진 경험을 살려 쓴 봉사활동 수필로 "전국봉사활동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은상을 수상하여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된 멋진 일도 있었죠. 제게는 너무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에 봉사활동을 했던 두 기관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20만 원씩 기부금을 전달했죠.

전주대학교 자기추천자 전형은 이런 저를 위해 준비된 은총이나 마찬가지로예요. 앞으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전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예요.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싶어요. 저만이 행복한 봉사가 아닌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니까요.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과 10학번 권희망



수퍼스타 우리가 키운다

전주대학교 입학사정팀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에게 다양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학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기초역량지원 프로그램**,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

★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추수지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대학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예비신입생 진로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대학생활 설계하기, 학과 · 전공 관련 과업활동, 창조적 리더십 특강 진행
	멘토링 프로그램	그룹목표 설정 및 계획하기 학기단위로 활동
기초역량지원 프로그램	신입생 독서길라잡이	전공도서(1권) 및 교양도서(1권)를 읽고 전공도서는 독후감 제출, 교양도서는 인터넷 독서토론방에 참여
	글로벌 기초교육	Reading & Grammar, Listening (LC), Conversation & Writing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단계별 학습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행	
	학습향상지원 프로그램	학습방법/전략, 리포트 작성법 등
	역사문화체험활동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리더십캠프	
	전공역량강화	단과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각 단대별 캠프운영



지난 11월 2일에 시행된 예비신입생 진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설계, 전공선택배와의 전공과업활동 등 특강 및 참여활동으로 진행되었어요. 전공탐색활동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3월 3일(수) 결연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학기단위로 운영됩니다. 결연식에서는 그룹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월 25일, 3주간의 글로벌기초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영어회화(토론)에서부터 문법, 독해까지, 실력이 쑥쑥!

★ 글로벌인재로 첫 발을 내딛는 제 딸을 응원합니다!

중등특수교육을 꿈꾸는 딸아이

"아빠! 약간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딸아이가 항상 입버릇처럼 한 말입니다. 딸아이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내외 기지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학창시절을 바쁘게 보냈고,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면서도 힘겨워 했지만 무척 재미있어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주대학교의 자기추천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었던 딸아이의 열정은 괄목할 만 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자기추천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솔 된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 입학사정관제에 지원을 준비하는 교수들과 모의토론회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철저함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추수지도 프로그램

결국 딸아이는 원하던 학과에 합격하여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고, 합격소식에 기뻐하고 있을 즈음, 전주대학교의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참여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학부모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허락하였지요. 실상 입학식 이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또래 학생과는 달리 "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 입학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 되더군요.

예비 대학생으로 추수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전주로 가는 딸아이의 모습은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이 충남 공주인 터라 먼 곳까지 딸아이 혼자 보내기가 어려워 추수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뻔 했는데, 숙소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추수지도 안내를 해주시는 입학사정관들을 보며 전주대학교에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입학사정관들에게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등특수교육과 10학번 최재희 학생의 학부모



고교와 대학이 만나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이곳에서!

나를 찾아서

무엇이든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생이 되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저 자신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김상기 선생님께서 제 적성에 맞는 제품 디자인 분야를 추천해 주셨고 고등학교 영재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부였기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력에 대한 결실이 하나 둘 맺어질 때 즈음 저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러브콜을 해준 기업에 취직할 것인가? 대학으로의 진학을 할 것인가? 제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진하여 꿈을 펼칠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선택 그리고 출발

저에게 있어서 대학선택의 기준은 저의 능력을 알아보신 교수님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교수님의 도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제게는 더 많은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입생 선발방식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내신보다는 열정과 잠재력을 보고 선발한다는 부분에 매력을 느껴 전주대학교에 지원했고 그것은 이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힘찬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비된 곳에서 준비된 미래

전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יי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하는 학생을 위해 준비된 곳이니깐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후배라면 여러분의 노력을 전주대학교에 보여주세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면 더 즐거운 대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주대학교에서 값지고 알찬 경험을 얻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 전시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디자인학부 10학번 엄태원(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꿈을 꾸기까지

중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관심이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선택이 좌절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께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여 인정받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을 만나다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 고2 때부터 실습 지도를 통해 만나게 된 김상기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많은 사람이 애용하게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고3 초부터 김상기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특기반에서 본격적으로 디자인공부를 시작했고, 그해 여름 "전북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수상 이후, 전주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주송교수님을 통해 산업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의 꿈은 학문을 통해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학교 작업실에 오셔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진학의 시기, 저는 꿈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취업의 기회를 잡느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던 저는 주송교수님을 찾아가 제 고민을 나누었고, 내신만으로는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희박한 저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해오던 포트폴리오와 저의 기록을 정리하여 지원하였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제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디자인학부 10학번 이재현(우)



★ 전주대학교와 주송교수는 고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실습을 가정으로서 미래의 인재를 발견해내고 있다.

The place for superstars

전주대학교

멀리선 미세한 빛을 내지만
가까이 보면 누구보다
커다란 가치를 드러내는 별처럼,
당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계획 안내

입학정원의 20%(565명)

모집시기	정원내외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사정관 전형구분
수시1차	정원내	목회자추천자	30	전과정 참여
		수퍼스타	123	
		지역인재균형선발	100	
	정원외	농어촌학생	112	부분참여
수시2차	정원내	지역인재균형선발	100	전과정 참여
		전문계/대안학교출신자	60	
		국가사회기여자/만학도·주부·취업자	40	부분참여
합계			565	

